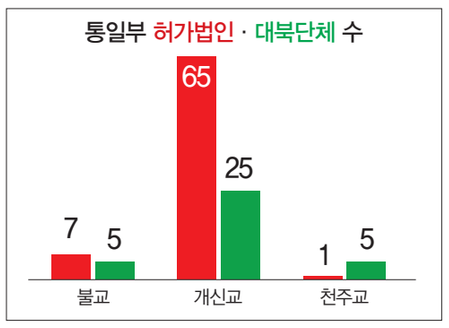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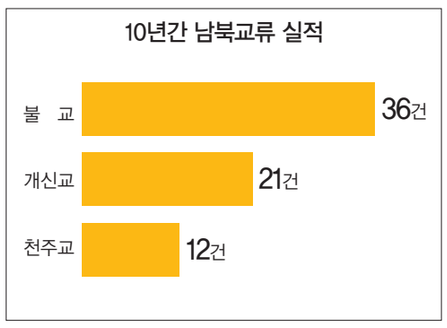
10년간 남북교류 실적 불교 '최다'

문화체육관광부 발간한 〈2018 한국의 종교 현황〉 결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통일부 허가법인 불교 7개
개신교 65개에 뒤처지지만
남북공동행사 등 실적 36건
이웃종교보다 월등히 앞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남북교류 실적이 가장 많은 종교는 불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을 수임해 수행한 조사 결과다. 문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국내 종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다.

문체부가 발간한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에는 기존 자료에 없던 '종교계 남북교류 현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 허가법인 총 391개 중 종교계 법인은 81개, 대북지원 지정단체는 종교계 단체는 108개 중 38개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불교계 통일부 허가법인은 △나누며하나되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통일불교협의회 △위드아시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좋은벗들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등 7개, 대북단체는 좋은벗들과 한국불교자유총연맹을 제외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포함된 5개로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반면 개신교는 허가법인 65개, 대북단체 25개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는 허가법인 1개, 대북단체 5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종교계 남북교류 추진 현황'서는 불교계가 작은 규모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다. 불교계는 공동 종교행사 24건과 인도적 대북지원 6건, 공동 성명서 발표 3건, 인적 교류 및 회동 3건 등 총 36건의 실적을 올렸다. 개신교 21건과 천주교 12건에 비해 월등한 성적이다. 조사에서 종교인 개별 접촉과 실무협의 등은 제외됐다.

2008년 조선불교도연맹과 대북교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조계종이었다. 그해 4월 10~11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후 쌀과 감기약 등 물품 지원을 비롯해 부처님오신날 남북합동법회,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 촉구' 남북불교도 합동법회(평양 광법사) 및 공동 합의,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묘향산 보현사) 등의 성과를 낳았다.

천태종 역시 2009년 11월 의천 대각국사 908주기 열반 다례재를 시작으로 북한주민 수해지원(쌀 10톤), 북한 영유아 지원(분유 1톤) 등을 이어갔다. 이웃종교계서는 개신교 NCCK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교류를 펼쳤다.

한편 남북교류 현황에서 종교계는 주로 인도협력(27개 법인)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펼쳤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21개 법인), 통일 활동 전반(19개 법인), 사회문화협력(11개 법인), 북한인권 개선(3개 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법인은 모두 개신교계가 담당하고 있어 향후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번 자료는 종교별 교세를 비롯해 종단, 법인, 선(포교사), 사회참여, 언론, 종립학교, 종교계 연구소, 요양 ·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 국방부 군종장교, 법무부 허가법인 및 교정위원, 전통사찰 및 향교, 국가지정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종교문화축제, 주요 기념일 등 국내 종교와 관련된 제반현황을 300여 페이지에 걸쳐 담았다.

중앙승가대 제8대 총장 원종 스님

승가학원 이사회 구랍 21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원행)은 구랍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17차 이사회를 열고 대학 총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장 후보로는 원종 스님이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의 추천으로 올라왔으며,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중앙승가대 제8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중앙승가대 신임 총장 원종 스님의 임명은 선출 직후 곧바로 이뤄졌다. 임명장 수여 후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그간 총장 부재로 이사 스님들이 마음 고생이 많았다. 총장 스님은 바로 학교로 가서 교내 행정 파악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총장 원종 스님은 "그동안 닦고 익힌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면서 "이사장 · 이사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대에 맞는 수행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 직후 이뤄진 인터뷰에서 원종 스님은 중앙승가대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극복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평소 승가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중앙승가대 소임도 여러 번 지낸바 있다"면서 "학교의 어려운 실정은 잘 알고 있으며 획기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다. 종단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사진 왼쪽)은 구랍 21일 중앙승가대 제8대 총장으로 선출된 원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종 스님은 이날 승가학원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선출됐다.

범어사에서 흥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종 스님은 1980년 범어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이후 스님은 원통사, 성주사 주지 등의 사찰 소임 이외에도 교육직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범어사 승가대학 강사(중강)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기획실장과 중앙승가대 동문회장, 승가학원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원종 스님의 임기는 임명 이후 4년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종사 · 명사법계 품서식 일정 확정

조계종 계단위원회, 수계산림 일정도 정해

대종사 · 명사 각각 1월 · 3월
동화사서 총 15人 품수 예정

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법계 품서식 일정이 정해졌다.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성우)는 12월 26일 제48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1월 8일 오후 2시 동화사에서 신년하례와 병행해 봉행키로 했다. 또한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법계 품서식은 3월 19일 동화사서, 종덕 · 현덕 법계품서식은 4월 11일 조계사서, 중덕 · 정덕 법계산림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직지사서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종사법계 품서 대상자는 현 원로의원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 등 4인, 비구니 명사법계 품서 대상자는 소림 · 행돈 · 묘관 · 자민 · 법희 · 수현 · 혜운 · 자행 · 불필 · 자광 · 재운 스님 등 11인이다.

이외에 39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은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범어사서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과 갈마아사리 종진 스님, 교수아사리 무관 스님을 3사로 한 7증사가 증명으로 나선다. 니7증사로는 니화상 자민 스님, 니갈마아사리 일초 스님, 니교수아사리 지형 스님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단일계단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은 4월 23~26일 수원 봉녕사에서 봉행된다. 또한 사미 · 사미니 56기 수계교육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57기 수계교육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직지사에서 전계사 종진 스님과 갈마아사리 무관 스님, 교수아사리 덕문 스님을 3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계단위원회는 회의서 사분율장 보급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다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계단위원을 중심으로 사분율장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철우 스님 번역본을 모본으로 편찬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작업이 완료되면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에게 사분율장을 보급, 청정승풍 진작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김천 직지사 주지 웅산 스님 사직

직지사 운영위, 법보 스님 차기 주지후보 추천

조계종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 주지 웅산 스님이 구랍 20일 사직원을 총무원에 제출했다. 스님은 앞서 12일 녹원 스님 입적 1주기 추모다례재 이후 주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지사는 1월 17일 오후 1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직지사 승가운영위원회는 웅산 스님이 사직원을 제출한 날 차기 주지후보로 前 중앙종회의원 법보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하면서 별다른 경선 없이 주지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웅산 스님은 2016년 10월 28일 직지사 주지로 선출됐다. 2년여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돌연 사직 의사를 밝힌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직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웅산 스님은 취임 당시부터 문중 안정과 교구 복지사업이 정착되면 임기 이전에라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웅산 스님은 은사인 직지사 조실 녹원 스님 입적 1주기를 맞아 부도탑을 건립하고, 교구복지사업 운영 토대를 만들었다고 판단해 사직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음악 저작권 문제 해결 모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조계종 예방해 업무협약

조계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불교음악 저작권 문제 해소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구랍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진영 회장 예방을 받고,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조계종과 저작권협회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문화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교음악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특수성을 감안해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를 거친 뒤 공개하기로 했다.

홍진영 회장은 원행 스님을 만나 "찬불가를 비롯해 불교음악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불교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가수나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교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다. 다만 저작권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며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을 배려하고 도움이 되도록 협회에서도 신경써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